



경상지역

팽나무

가덕도에서 육지로 옮겨온 팽나무



지정번호	부산-2-9-5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94
지정년도	2012	35° 10' 01.55" N
관리기관	부산	129° 07' 41.12" E
수령	500년	
수고	13m	
흉고둘레	2.9m, 2.2m	

부산의 나루공원은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센텀시티가 조성되면서 주상복합 용도와 더불어 탄생한 공원이다. 나루공원의 명물은 해운대로 들어가는 관문인 수영교를 건너자마자 입구에 서 있는 2그루의 노거수 팽나무이다. 나무나이가 500년이 된 할아버지 팽나무(할배나무)와 300여 년이 된 할머니 팽나무(할매나무)이다. 할아버지 팽나무의 나무높이는 13m, 가슴높이둘레는 갈라진 줄기 2개가 각각 290cm와 220cm 정도이다. 할머니 팽나무의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310cm 정도이다. 할아버지 팽나무는 높이 50cm 정도에서 원줄기가 2갈래로 크게 갈라졌으며, 생육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할머니 팽나무는 높이 3m 정도에서 원줄기가 3갈래로 갈라졌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이 팽나무는 본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부산의 서쪽 끝자락 섬 가덕도에 있던 노거수였다. 그동안 울리마울의 수호신 역할을 해왔던 당산목이었다. 신항만 컨테이너 배후부지 조성 및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 예정지에 있던 이들 팽나무는 원래 위치에서 보존하려고 일주도로 노선 일부를 변경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부산시가 이것을 거액의 경비를 들여 동쪽 끝 해운대 APEC 나루공원으로 옮겨 심은 것이다. 이 팽나무들은 2척의 바지선으로 해상 운반되었다. 바지선에 실린 팽나무는 60여km를 뱃길로 이동한 뒤 해운대 우동항에 도착하였다. 이어 트레일러로 1km 떨어진 나루공원으로 운반하여 신속하게 식재하였다. 그루당 평균 밑동 지름 1,5m, 높이 20m, 무게 70t에 달하는 거대한 팽나무들을 옮겨 심는 과정은 수목 전문가 및 공사 관계자 등 50여명과 바지선, 대형 트레일러, 굴착기, 크레인 등이 동원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였다. 나루공원까지는 차량 통행이 뜸한 감감한 새벽에 왕복 8차선 도로를 통제한 채 육교와 전신주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팽나무 2그루는 2010년 3월 30일 나루공원으로 이사를 하였고, 나루공원에 뿌리를 내린 후 2012년 7월 17일 부산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한편, 팽나무 2그루는 현재 고층빌딩이 즐비한 센텀시티를 배경으로 서 있어 매우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